

星州地域語의 종결어미 연구

李 東 華

<목 차>

I. 서 론

2.3 명령법

II. 본 론

2.4 청유법

2.1 서술법

III. 결 론

2.2 의문법

I. 서 론

1.1 최근 방언에 대한 국어학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 업적도 괄목할 정도로 축적되어 가고 있다. 연구 방법 또한 초기단계의 방언 자료 제시 정도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개별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¹⁾

그런데 70여 년에 이르는 방언연구사를 대강 훑어보면 대부분 음운론적 연구에 치중하여 왔을 뿐 통사론적 접근은 소홀히 다루어 온 느낌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성주지역어의 종결어미가 갖고 있는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물론 활용어미 전반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선 종결어미만 다루기로 하고 접속어미나 선어말어미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1.2 종결어미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문체법과 경어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바, 문체법은 설명의 편의상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누기로 한다.

경어법은 준대의 등급이 뚜렷한 이 지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4분법으로

1) 한 방언(또는 지역어)의 문법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최명옥(1980)의 선구적인 업적을 들 수 있다.

한다.²⁾ 즉,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는 대우의 의미자질을 [하대], [존대], [정중]으로 보고, ‘해라’체는 [+하대, -존대, -정중], ‘하게’체는 [-하대, -존대, -정중], ‘하소’체는 [-하대, +존대, -정중], ‘하이소’체는 [-하대, +존대, +정중]의 자질을 가지는 경어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령, 의문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발화를 보면 화자와 청자의 대우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해라’체……………(니이,) 오늘 일 좀 했나?

‘하게’체……………(자네,) 어테 갔다 왔고?

‘하소’체……………(아제,) 방금 무슨 이야기 했소?

‘하이소’체……………(아부지,) 오늘 어테 갔다 오십니까?

1.3 성주군은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군이다. 본래 성산 가야의 땅이었는데 신라의 영토가 된 뒤 지명을 본피현이라 하였었고, 고려 현종 때에는 그 소령을 현재의 성주 이외에 고령, 칠곡, 달성, 금릉까지 뻗쳐서 1군 14현을 두었었다. 조선 태종조부터 성주라 하여 목사를 두었다가 1895년 성주군이라 개칭하여 군수를 두었다. 1934년 2월 몇 개 면을 통폐합하여 10개 면 111개 동이 되었으며, 1979년 5월 성주면이 성주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 1개읍 9개면이 있다.

이번의 자료조사 대상지점은 성주군의 동북쪽에 위치한 月恒面 安浦洞이 선정됐으며, 제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³⁾

거 주 지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비 고
안포 4동 622	이연수	남	58	농 업	주제보자
◇ 564	채병문	◇	69	◇	부제보자
◇ 452	이 실	◇	45	◇	◇
안포 5동 347	최태영	◇	77	◇	◇
◇ 308	김태호	◇	71	◇	◇

2) 성기철(1975)에서의 두루높임인 ‘해요’는 ‘하소’체에, 두루 낮춤인 ‘해’는 ‘해라’체에 편의상 포함시키기로 한다.

3) 몇 차례의 자료 조사에 친절히 응답해 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Ⅱ. 본 론

2.1. 서술법

2.1.1 '해라'체

「-다」: 이 어미는 형용사, 제사의 어간 뒤에 결합되며, 회상소 '-더-' 이외의 모든 선어말어미가 이 어미 앞에 선행될 수 있다.

(1) ㄱ. 내가 오늘 배가 마이(=많이) 아푸다.

ㄴ. 저기 우리 논이다.

ㄷ. 우리 눈에 약 다 찼다.

「-다」: 이 어미는 회상소 '-더-'와(2 ㄱ) 내포문에서의 제사 어간에 결합된다(2 ㄴ). 또한 (2 ㄷ, ㄸ)에서처럼 보문의 표제명사 뒤에서도 관용적으로 쓰인다.⁴⁾

(2) ㄱ. 사람이 마이 모으더라.

ㄴ. 오늘이 장날이라 한다.

ㄷ. 전화로 막 퍼붓는 기라.⁵⁾

ㄸ. 내가 그럴 부탁을 했는 기라.

「-은/는다」: '-은다'는 모음으로 끝난 동사 어간 뒤에, '-는다'는 자음으로 끝난 동사 어간 뒤에 결합된다. 이 어미는 존대소 '-으시-'와 결합되거나 시상소 '-았-'과는 결합되지 않는다.

(3) ㄱ. 야야 내 지금 발 간다.

ㄴ. 우리는 인제 밥 묵는다.

「-지」: '-다'에 비해 덜 단정적이며 화자의 약한 의지를 나타낸다. 이 어미는 용언 및 제사어간 뒤에 두루 쓰인다. 회상소 이외의 선어말어미와 결합된다.

4) 허용(1984: 226)에서는 '-라'를 '-다'의 이형태로 잡고 있으나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형태소로 잡는다. 이광호(1983)에서는 중세국어에 있어서 {-다/-라}가 변별적 의미자질을 가진 형태소로 설명하고 있다.

5) '기라'는 '것(의존명사)+이(제사어간)+라(어미)'로 분석되는데, 음절축약에 의해 '게라'의 과정을 거쳐 $\varepsilon \rightarrow i$ 의 음운규칙에 의해 '기라'로 된 것이다.

(4) ㄱ. 그거 참 좋지.

ㄴ. 아무도 안 하만 그 일은 내가 하지.

ㄷ. 저기 바로 우리 집이지.

ㄹ. 전에는 그 집도 참 잘 살았지.

「-아/어」: 이 어미는 흔히 반말체로 설명되는 문법형태소인데, 약간 얼버무리는 표현에 쓰인다. 회상소 ‘-더-’ 이외의 모든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5) ㄱ. 여어(=여기에) 있어.

ㄴ. 고기 잡아.

ㄷ. 그 사람은 벌써 갔어.

「-을게」: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음성적으로는 ‘-으께’로 실현된다.⁶⁾

(6) ㄱ. 줌 잇다 가게.

ㄴ. 빨리 하께.

ㄷ. 다시는 안 묵으께/무우께(=먹을게).

「-구나」: 형용사어간 뒤에 결합되며, 감탄을 나타낸다. 회상소 ‘-더-’ 이외의 선어말어미와 결합될 수 있는데 이 때는 동사어간 뒤에서도 가능하다. ((7 ㄷ, ㄹ))

(7) ㄱ. 아따 이거 참 크구나.

ㄴ. 저 산 높구나.

ㄷ. 모도(=모두) 못 봤겠구나.

ㄹ. 오늘 일 마이 했구나.

「-는구나」: 동사어간 뒤에 결합되어 감탄을 나타낸다.

(8) ㄱ. 아아들 밤 잘 묵는구나.

ㄴ. 저 사람 일 잘 하는구나.

「-아/어라」: 주로 형용사어간 뒤에 연결되어 감탄을 표시하며 감탄사를 선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이 형태소는 기원적으로 ‘의지’ 또는 ‘추단’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을-’과 어미 ‘-게’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으나, 이 때 ‘-을-’의 의미적 독립성이 약하고 그 분포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어미로 잡는다. ‘-을세’, ‘-을까/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 (9) ㄱ. 아이 덩어라.
 ㄴ. 아이구 아파라.
 ㄷ. 아이 좋아라.

2.1.2 '하계' 체

「-으네」: 용언어간 뒤에 두루 쓰이며, 단정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회상소 이외의 선어말어미와 연결될 수 있다.

- (10) ㄱ. 이거 참 좋으네.
 ㄴ. 자네 오늘 큰일 했네.
 ㄷ. 아직 덜 났는 모양이네.
 ㄹ. 내 먼저 묵네.

「-음세」: 동사어간 뒤에 연결되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1인칭 주어에만 호응된다.

- (11) ㄱ. 이 사람아, 나는 이래 할세.
 ㄴ. 자네 집에 꼭 감세.
 ㄷ. *그도 꼭 함세.

「-음세」: 단정적인 의미가 약해 보이며, 동사어간이나 제사어간 뒤에 쓰인다.

- (12) ㄱ. 그 일은 나도 할세.
 ㄴ. 이게 우리 논일세.

「-으이」: 형용사어간에 연결되며, 회상소 '-더-'와 결합하여 '-데'로 쓰이면 동사어간 뒤에도 연결될 수 있다.⁷⁾

- (13) ㄱ. 그 집 식구가 참 많으이.
 ㄴ. 어제 일 마이(=많이) 했데.
 ㄷ. 그 사람이 내한테 막말하듯 하데.

2.1.3 '하소' 체

「-을라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쓰인다.⁸⁾

7) 이 형태소는 최명옥(1980 : 71)에서 이미 '더+이'로 분석된 바 있다.

8) 이 어미는 '의도' 표시의 선어말어미 '-을다-'와 침사 '-요'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선어말어미 다음에 종결어미가 연결되지 않고 침사 '-요'가 결합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로 잡는다. 다음 발화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을다-' 뒤에 종결어미 '-은기요'가 결합된 것이다.

“오늘 장에 갈랑기요?”

6 嶺南語文學(第12輯)

(14) ㄱ. 이제 집에 갈라요.

ㄴ. 나 먼저 밥 먹올라요/무올라요.

「-오」: 계사어간 뒤에 결합되며, j가 삽입되어 음성적으로는 ‘-요’로 실현된다.

(15) ㄱ. 여어가(=여기가) 우리 집이요.

ㄴ. 곧 집에 갈 찰이요.

「-아/어요」: 이 어미는 ‘해라’체의 ‘-아/어’ 뒤에 첨사 ‘-요’가 결합되어 존대의 등급이 높아진 것이다.

(16) ㄱ. 크일(=큰일) 났어요.

ㄴ. 이웃집에 갔다 와요.

「-지요」: ‘해라’체의 어미 ‘-지’에 첨사 ‘-요’가 결합된 것이다.

(17) ㄱ. 그거 참 좋지요.

ㄴ. 이 일은 지가(=제가) 하지요.

「-으소」: 용언어간에 두루 결합되며 이 지역어에서 널리 쓰인다. 계사어간에 결합되는 ‘-오’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18) ㄱ. 오늘 자아(=장에) 갔다 왔소.

ㄴ. 이제 방금 나왔소.

ㄷ. 이거 참 좋소.

2.1.4 ‘하이소’체

「-읍/습니다」: 이 어미는 주존대를 표시하는데 쓰이며, ‘읍니다’는 모음어간 뒤에, ‘-습니다’는 자음어간 뒤에 결합된다. 용언어간과 계사어간에 두루 연결된다.

(19) ㄱ. 지금 일 합니다.

ㄴ. 방금 밥 먹었습니다/무었습니다.

ㄷ. 저기 우리 논입니다.

ㄹ. 이런 기정(=구경)은 생전 처음입니다.

2.2. 의문법

2.2.1 ‘해라’체

「-가/교」: 이 어미는 계사어간에 연결되어 ‘-가’는 [-의문사], ‘-교’는

[+의문사]의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

(20) ㄱ. 저기 너그저 아이가(=너의 첫 아냐)?

ㄴ. 저 동네가 무슨 동네고?

ㄷ. 거어 누우고(=거기 누구냐)?

「-을까/ㄹ까」: 이 어미는 문말억양에 의해 매우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음이 이미 최명옥(1980: 77)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의지’나 ‘추단’이 이 어미가 지니는 주요한 의미자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발화의 상황에 따라 (21 ㄱ)처럼 화자의 독백일 경우 자신의 의지를 표시할 수도 있고, (21 ㄴ)처럼 의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청자의 의사를 물어보거나(21 ㄷ), 막연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21 ㄹ).

(21) ㄱ. 오늘 자아나(=장에나) 가까?

ㄴ. 내가 그 일을 하까?

ㄷ. 나는 어째꼬?

ㄹ. 가아가(=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잇시까(=있을까)?

「-나/노」: 용언어간에 두루 결합되며, 선어말어미가 선행될 수 있다. ‘-가/교’와 통사적 구조가 같으며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22) ㄱ. 오늘 일 좀 했나?

ㄴ. 거어(=거기에) 있드나?

ㄷ. 이리 가만 어데로 가노?

「-지」: 서술법 ‘해라’체의 ‘-지’는 문말억양이 약간 하향형인데 비해 이 어미는 수평형이다.

(23) ㄱ. 이거 참 좋지?

ㄴ. 오늘 집에 있지?

「-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다는 전제아래 청자에게 확인 받으려는 의문형식에 쓰인다.

(24) ㄱ. 가고 싶으면 가는 기 좋제?

ㄴ. 니 동생 지금 집에 있제?

ㄷ. 이거 참 크제?

「-을래」: 청자의 의사 표시를 요구하면서도 완곡히 부탁하는 표현이다.

8 嶺南語文學(第12輯)

(25) ㄱ. 내가 하든 거 니가 좀 할래?

ㄴ. 이거 좀 잡을래?

2.2.2 ‘하계’체

「-은가/교」: 형용사어간이나 제사어간 뒤에 결합되며, 의문사를 취하는 통사적 특성은 ‘-가/교’와 같다.

(26) ㄱ. 자네 집은 다 편은가(편한가)?

ㄴ. 이제 머언교?

ㄷ. 가아가(=그 아이가) 영수 아들이가?

ㄹ. 저 사람이 누군교?

「-는가/교」: 동사어간 뒤에 결합되며 통사적 특성은 ‘-가/교’와 같다.

(27) ㄱ. 자네 밥 묵었는가?

ㄴ. 방금 어데 갔다 왔은교?

ㄷ. 오늘 일 하는가?

ㄹ. 돈은 다 어했은교?

「-은강/공」: 이 어미는 ‘-은가/교’와 통사적 구조는 같으나 ‘알다’류의 상위문 동사(‘모르다’등)를 기저에 가진 구조로 해석된다. 이것은 청자에 대한 직접의문 형식이 아니라 불확실한 생각을 표현하는 자문형식의 의문이다.

(28) ㄱ. 요새 그 어른 집도 편은강?

ㄴ. 그 사람 이름이 머언공?

「-는강/공」: 동사어간 뒤에 연결되며 그 통사적 특성은 ‘-는가/교’와 같다.

(29) ㄱ. 큰일 집에 손님은 많이 왔은강?

ㄴ. 그 사람 언제 왔은공?

2.2.3 ‘하소’체

「-으소」: 용언어간 뒤에 두루 연결되며, 서술법 ‘-하소’체의 ‘-으소’가 약간 하강형의 문말억양을 갖는데 비해 이 어미의 문말억양은 수평형인 점에 차이가 있다.

(30) ㄱ. 거어 한번 가왔소?

ㄴ. 방금 무슨 이야기 했소?

ㄷ. 이거 좋소?

「-지요」: 이 어미 역시 서술법의 ‘-지요’와 문말억양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는데, 전자의 그것이 수평형인데 비해 후자의 그것은 하강형에 가깝다.

- (31) 가. 이 산이 참 노루지요?
 나. 어제 일 마이 했지요?

「-올라요」: 동사어간이나 존재사어간에 연결되어 화자의 의도를 묻는 형식에 쓰인다. 서술법의 ‘-올라요’가 약간 하강형의 문말억양을 갖는데 비해 이 어미는 수평형의 그것을 갖는다.

- (32) 가. 아제, 자아(=장애) 안 잘라요?
 나. 여어(=여기에) 더 이실라요?
 다. 이거 좀 같이 들라요?

「-을까/꼬요」: 이 어미는 ‘해라’체의 ‘-을까/꼬’보다는 사용 범위가 좁으며, 주로 청자의 의사나 판단을 묻는데 쓰인다. 음성적으로는 ‘-으까/꼬요’로 실현된다.

- (33) 가. 어때 좀 갔다 오까요?
 나. 내일 또 비가 오까요?
 다. 오늘은 뭐 하꼬요?

「-은/는 기요」: 용언어간이나 제사어간 뒤에 두루 연결된다. 젊은층에서 주로 사용하며 ‘-소’보다는 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 같다.

- (34) 가. 이거 누우 집인기요?
 나. 지금 먹어 하는기요?
 다. 오늘 논 안 갈았는기요?

2.2.4 ‘하이소’체

「-읍/습니까」: 극존대에 사용되는 의문법 어미이다. 용언어간이나 제사어간에 두루 결합되며 회상소 이외의 선어말어미와 자유롭게 결합된다.

- (35) 가. 할배 오늘 어때 갔다 오십니까?
 나. 곡식이 싸다고 헐키(=헐하게) 팔겠습니까?
 다. 이걸 반찬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라. 어제 밤에 비 마이 왔습니까?

2.3. 명령법

2.3.1 ‘해라’체

「-아/어라」: 직접명령에 두루 쓰인다.

- (36) ㄱ. 야야 밤 묵어라/무우라.
 ㄴ. 저어(=저기에) 갖다 여어라(넣어라).
 ㄷ. 거름 줌 실어내라.

「-으라」: 간접명을 나타내는 내포문의 문말에 쓰인다.

- (37) ㄱ. 아버지가 일하라 카시더라.
 ㄴ. 영수가 빨리 오라 카더라.

「-거라」: 이 어미는 ‘가다, 자다, 앓다, 있다’ 등 일부 어사에만 쓰인다.

- (38) ㄱ. 기양(=그냥) 가거라.
 ㄴ. 고만 일찍 자거라.
 ㄷ. 나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너라/나」: 이 어미는 ‘오다’에만 연결되어 쓰이며, 젊은층에서는 ‘-나」가 많이 쓰인다.

- (39) ㄱ. 자아(=장애) 갖다 빨리 오너라.
 ㄴ. 니가 가아보다(=그 아이 보다) 먼지 온나.

2.3.2 ‘하계’체

「-게」: 이 어미는 ‘하계’체에 두루 쓰인다.

- (40) ㄱ. 자네가 이거 좀 하계.
 ㄴ. 오늘 눈에 좀 갖다 오계.

2.3.3 ‘하소’체

「-으소」: 이 어미는 ‘하소’체에 두루 쓰인다.

- (41) ㄱ. 아제, 이거 좀 하소.
 ㄴ. 오늘 일 좀 거들어 주소.
 ㄷ. 안 넘어지게 꼭 빨잡으소.

2.3.4 ‘하이소’체

「-으이소」: 이 어미는 ‘하소’체의 ‘-으소’에 겸양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이-’가 결합된 형태로서, 존대 표시의 선어말어미 개재 여부에 따라 ‘하소’체와 구별된다.⁹⁾

- (42) ㄱ. 할배, 께이(=편하게) 땡기 오이소.
 ㄴ. 이거 하나만 주이소.
 ㄷ. 이쪼오로 안지이소(=이쪽으로 앉으십시오).

2.4 청유법

2.4.1 ‘해라’체

「-자」: 이 어미는 ‘해라’체에 널리 쓰인다.

- (43) ㄱ. 이 일은 나랑 같이 하자.
 ㄴ. 같이 발 좀 매자.

2.4.2 ‘하게’체

「-으세」: 이 어미는 ‘하게’체에 두루 쓰인다.

- (44) ㄱ. 눈에 약 치기는 우리 들어 하세.
 ㄴ. 조금만 더 있으세.

2.4.3 ‘하소’체

「-읍시다」: 이 어미는 ‘하소’체에 널리 쓰인다.

- (45) ㄱ. 아제, 이거 좀 합시다.
 ㄴ. 오늘 논 좀 같이 맏시다.
 ㄷ. 인제 집으로 감시다.

2.4.4 ‘하이소’체

「-읍시다」: 명령법의 경우처럼 ‘하소’체의 ‘-읍시다’에 겸양표시의 선어말어미 ‘-으이-’의 결합인 ‘-으읍시다’가 극존대를 나타낸다.

- (46) ㄱ. 아버지, 같이 좀 하읍시다.
 ㄴ. 천천히 가읍시다.

9) 존대 표시의 선어말어미 ‘-으이-’와 겸양표시의 선어말 어미 ‘-으이-’가 결합된 ‘-으시이-’형태는 극존대를 표시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체보자의 말에 의하면 극히 공식적이고 정중한 표현을 쓸 경우 ‘-으시이-’가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Ⅲ. 결 론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3.1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성주지역의 언어는 경북 북부나 다른 지역어에 비해 경어법 체계에 있어서의 존재의 등급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존재의 ‘하소’체와 극존대의 ‘하이소’체를 구별하는 의미자질로 설정한 [정중]은 종결어미에 의해 분명히 다르게 실현되고 있다. 다만 서술법과 의문법에서 대립적인 체계를 보이는 경어법이 명령법과 청유법에서는 겸양표시의 선어말어미 ‘-으이’의 개재에 의해 종결어미의 공백을 보충해 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종결어미가 갖고 있는 통사적·의미론적 특성을 지금 단계로선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앞으로의 과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술어의 어휘적·문법적 의미, 선어말어미의 의미·기능, 주어와 서술어와의 관계, 화자의 발화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2 이 지역어의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문체법	경 어 법	종 결 어 미
서 술 법	‘해라’체	-다, -라, -은/는다, -아/어, -게, -지, -구나, -는구나, -아/어라
	‘하게’체	-으네, -음세, -을세, -으이
	‘하소’체	-을라요, -오, -아/어요, -지요, -소
	‘하이소’체	-음/습니다.
의 문 법	‘해라’체	-가/고, -을까/꼬, -나/노, -지, -제, -올래
	‘하게’체	-은가/고, -는가/고, -은강/궁, -는강/궁
	‘하소’체	-소, -지요, -을라요, -을까/꼬요, -은/는기요
	‘하이소’체	-음/습니까.
명 령 법	‘해라’체	-아/어라, -으라, -거라, -너라/나
	‘하게’체	-게
	‘하소’체	-소
	‘하이소’체	-(으이)소

청	'해라'체	-자
유	'하개'체	-으세
법	'하소'체	-읍시다.
	'하이소'체	-(으이)ㅂ시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78) “안동방언의 서술법과 의문법”, 『언어학』 3호(한국언어학회)
- _____ (1980) “안동방언의 경어법”, 『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성기철(1975) “국어 대우법 연구” 『현대국어문법』, 계명대출판부
- 이광호(1983)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국어학』 12집, 국어학회
- 전인득(1979) “경북 상주방언의 활용어미 연구”, 영남대학교학원
-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서남경남방언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15.
- _____ (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허 응(1984)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서정목, 이광호, 임홍변(역)(1984) 『변형문법이란 무엇인가』, (Radford : 1981), 을유문화사